

제2회 우수편집도서상 심사평

제2회 '우수편집도서상'에 접수된 심사 대상 책은 작년 58개 출판사 105종에 비해 늘어난 86개 출판사 131종(성인 101종, 아동·청소년 30종)이었다. 본심 심사위원들은 예심위원들의 수고를 거쳐 선정된 8종의 책을 예심 평가 함께 넘겨받아 한 달여의 시간을 갖고 검토하였다.

각종 문학상, 학술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선정되는 추천도서 등 실질적으로 책에 주어지는 상이나 영예는 많지만, '편집'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우수편집도서상'은 책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편집'의 역할에 강조점을 둔 유일한 상이다. 따라서 본심 위원들은 1회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예술'이라 할 편집의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크게는 간행할 의의와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에서부터 기획 의도와 주제를 잘 살려냈는가, 판형·판면구성·디자인은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사되었는가, 교정·교열이 철저하고 좋은 우리말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일러두기·주석·색인 등 필요한 편집 요소를 갖췄는가, 그리고 문장 부호 사용은 적절하고 정확한가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보았다.

심사위원들은 한 권 한 권 순서대로 각 책에서 파악한 편집의 특색과 완성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러 전문가의 눈을 거처다 보니, 부족한 점들도 눈에 띄고 편집자의 감각과 노고를 더한층 실감하게도 되었다. 본심에 오른 책에서도 가끔씩 보이는 오자, 띄어쓰기 오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실수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겠고, 들여쓰기와 문장 부호 사용 등의 편집 원칙, 본문 디자인의 기능성과 심미성에 관련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과제들이 보였다.

예심을 통과한 여덟 책은 분야가 다양하면서도, 각기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살려서 독자에게 전해주는 편집 감각을 발휘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내용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심사위원들은 각각의 책이 보여준 색깔과 깊이를 통해 우리 출판이 성숙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윤태영 지음, 책담)은 '기록'을 중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간결하고도 압축적인 기록으로, 잘 읽히도록 소박하게 편집된 것이 장점이다. [맹자, 시대를 찌르다](정천구 역주, 산지니)는 [맹자]에 대한 새로운 번역 및 주석서인데, '아름다운 순우리말 번역'을 지향한 책으로서 산만하지 않게 번역과 주석, 참고적 해석에 집중한 편집이 돋보였다. [자저실기(自著實紀)](심노승 지음, 안대회 외 옮김, 휴머니스트)는 '기록벽과 정리벽'을 가진 조선 시대 선비의 흥미로운 저술을 처음 번역해 내놓은 것이다. 항목별로 읽기 편하도록 과하지 않은 편집 감각을 발휘하였으며, 번역문도 매끄럽게 읽힌다.

[안정효의 오역 사전](안정효 지음, 열린책들)은 저자의 열정과 편집자의 노고가 짙게 밴 책으로, 방대한 양을 사전 형식으로 말끔하게 정리하였고 각 항목이 술술 재미있게 읽힌다는 것이 장점이다. [꼬리 치는 당신](권혁웅 지음, 마음산책)은 동물을 소재로 한 '우화시(寓話詩)'에 흑백 삽화를 곁들여 감성적으로 편집하였을뿐더러 참고 문헌과 찾아보기를 붙여 신뢰성과 활용성을 강화한 것이 돋보였다. [강냉이, 담장을 넘다](청소년 인문학 모임 강냉이 지음, 한티재)는 청소년들이 쓴 글을 위주로 엮은 책인데, 책의 성격을 잘 드러낸 표지 디자인 등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공부와 생각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전달하고자 한 편집자의 정성이 느껴진다.

위 여섯 책에 배어 있는 편집 역량도 탄탄한 것이었지만, 논의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보작을 더 압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강명관 지음, 천년의상상)와 [관찰아, 선생님이 기다릴게](김영란 쓰고 그림, 사계절) 두 권을 제2회 우수편집도서상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는 고려시대 인쇄술로부터 시작해 조선시대 출판 인쇄 문화의 역사를 야심적으로 다룬 저작이다. 밀도 있는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힘찬 주장이 어우러진 진경은 책이라는 몸체를 입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데, 편집의 밝은 눈과 세심한 손길이 이를 멋지게 구현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각 글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부분과 전체의 짜임이 정교해서 내용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도판의 선정과 배치, 주석 처리에서의 세심함도 돋보인다. 인명과 저작명, 용어 찾아보기에서 누락된 항목들이 있는 것은 추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관찰아, 선생님이 기다릴게]는 어린이책 분야의 기획서로, '특수학교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다. 일터인 특수학교의 모습, 아이들과 생활하는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러스트로 집약해 보여주는데, 이야기와 구성이 탁월해서 일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마음까지 절절하게 드러낸다. 각 장면에서 일러스트와 텍스트의 조화를 이룸은 물론 부드러운 우리말 구사, 정확한 교열 교정도 기획 의도를 받쳐주는 뛰어난 편집 역량의 증거라 할 것이다.

*

우수편집도서상은 편집이 잘된 책을 뽑아 상을 주는 행사지만, 이를 통해 출판인들이 책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편집'과 편집을 직접 담당하는 '편집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지고 제대로 책을 만드는 출판 풍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상의 본래 취지일 것이다.

예시를 통과한 8종의 책을 검토하면서 심사위원들은 편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편집자를 비롯한 출판인들에게 유익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적어둔다.

-본문 판면 구성에서 디자인적 접근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것이 독서의 효율성을 오히려 낮추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었다. 페이지 숫자와 면주(하시라)의 분리 및 분산 배치, 선과 색 등의 사용 같은 특징들이 시각적 효과를 높이지만 실질적인 독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용문의 들여쓰기를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었다. 검토한 책들을 보면 역사 문헌 자료, 문학 작품 등의 인용문에서, 별행으로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집하고 있다. 이는 원문을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고, 들여쓰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방식을 따른 것도 아니다. 인용문이나 한문 번역문의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편집 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찾아보기, 참고 문헌 목록의 경우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페이지 숫자 처리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들이 보인다. 찾아보기나 참고 문헌을 갖추는 데는 철저한 편이나, 세밀한 작성과 교정에는 철저함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말 띄어쓰기의 경우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와 관련된 어문 규정도 어렵고, 그

적용도 출판사마다, 책마다 제작각인데, 최소한 한 권의 책에서는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다. 편집의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처리할지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장 부호 사용에서도 가독성을 해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적용이 종종 보인다. 문장 부호 관련 한글 맞춤법 개정안이 최근 고시되었듯이, 그동안 어문 규정의 범위에서만 문장 부호를 사용하려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사용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원칙을 세워 적용하는 것이 좋다.

-어미인 ‘-나바’, ‘-는바’를 ‘-나 바’, ‘-는 바’와 같이 띄어쓰기를 잘못된 사례들이 보인다. ‘-가량’(접미사), ‘한마디’(짧은 말, 간단한 말), ‘그다음’, ‘그때’ 등도 띄어쓰기를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문 규정을 그대로 따른 띄어쓰기가 매우 어색한 경우가 간혹 있지만, 어문 규정과 국어 문법을 충실히 익혀서 이를 모르거나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집’과 ‘편집자’를 존중하는 풍토가 없으면 좋은 편집으로 책을 만들 수 없다. 훌륭한 편집은 뛰어난 편집 실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저자, 디자이너 등 책을 만드는 데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협력하지 않고, 출판사의 작업환경, 주어진 시간 등 여건이 열악한 경우라면 아무리 훌륭한 안목과 실력을 갖춘 편집자라도 자신의 역량을 백퍼센트 발휘할 수 없다. 편집자에 대한 존중과 그에 걸맞은 대우는 좋은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관건이다.

(2014. 11. 10.)